

## 한-호주, 콘덴세이트, LNG, 핵심광물 등 에너지자원 안보 공조 강화

- 중동전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 발표-
- 韓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콘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 당부 -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4월 30일(목) 서울에서 방한 중인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중동전쟁으로 고조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양 장관은 한국과 호주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구축해 온 매우 긴밀하고 상호보완적인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현재 호주는 한국의 최대 LNG 공급국('25년 비중 31.4%)이자,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생산에 필수적인 ‘콘덴세이트’의 주요 공급국이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1위 석유제품 공급국(점유율 29.1%)으로서, 양국은 그간 호주의 ‘자원’과 한국의 ‘석유제품’을 서로 안정적으로 주고받으며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은 산업통상부를 포함한 5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한-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nergy Resource Security)」을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양국이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확고한 협력 의지를 대외에 공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한)산업통상부, 외교부 / (호)산업과학자원부, 외교통상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 속에서 호주産 콘덴세이트 등 원유가 우리 석유화학 산업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주는 매우 안정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호주의 안정적인 내수 천연가스 공급은 유지하면서도 한국으로의 LNG 물량은 차질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호주측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원부국\*이자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국\*\*인 호주와 미래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핵심광물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가 구상 중인 핵심광물 전략비축제도\*\*\*가 공급국, 수요국 모두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이자 수급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논의를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호주 광물 글로벌 생산순위('24년) : 리튬 1위, 희토류·코발트· 4위, 니켈 6위 등

\*\*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 순위(정광, 금액기준) : 호주(1위, 36%), 인니(2위, 10%), 캐나다(3위, 9%)

\*\*\* 호주 정부는 주요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정부 등과의 '오프테이크 계약' 등을 체결하는 핵심광물 전략비축제도 추진중 ('26.下 시행 목표)

산업부는 이번 공동성명의 발표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호주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원유, LNG, 콘덴세이트 및 핵심광물 등 주요 협력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80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국과 호주 양국 간의 실장급 협의체로서 에너지자원 분야의 공식적인 협력 창구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240)
		담당자	서기관	신승일 (044-203-5253)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장선화 (044-203-5218)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한주현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박성배 (044-203-5216)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윤가영 (044-203-5258)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중남미대양주통상팀	책임자	팀 장	이동섭 (044-203-5630)
		담당자	사무관	박경숙 (044-203-5637)

**Australia-Republic of Korea (ROK) Joint Statement on Energy Resource Security**

Australia and the ROK ar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 with a common vision for an open, inclusiv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Australia and the ROK share deep concern over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and its consequences for our region, including impacts in energy, resources and other important commodities.

The central pillar of our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s a long and trusted economic and energy resource partnership, grounded in a shared commitment to open markets and rules-based trade, which underpins our prosperity and economic security. Reaffirming these shared principles and understanding the gravity of the impact of current situation on industries and markets is essential at this time.

We advance our energy resource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through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KAFTA) and the Green Economy Partnership Arrangement on Climate and Energy (GEPACE). Australia is the ROK's largest supplier of LNG and one of its key suppliers for condensate and critical minerals, while the ROK is one of Australia's key suppliers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its largest supplier of diesel.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strengthen energy resource supply chain resilience, including through deepening regional cooperation, accelerating energy transition, addressing unjustified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and supporting open trade arrangements for energy resources and liquid fuels.

We recognise our shared commitment to resilient trade and markets in energy extends to the region. We acknowledge the specific energy resource security vulnerabilities for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the importance of energy resource supply to their economic prosperity and stability.

Against this backdrop, Australia and the ROK reaffirm our commitment to working together to strengthen energy resources security, including efforts to maintain a stable, secure and reliable supply of diesel and other liquid fuels, energy resource commodities including liquified natural gas and condensate, and to notify and consult each other on any potential disruptions as far as practicable.

Australia and the ROK call on regional partners to join in ensuring global energy resource supply chains are kept open, for the benefit of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people.